여자배구 리드할 '리드' 입국…페퍼스 완전체로 시즌 대비

미국 국가대표에 브라질 리그 득점 1위 출신…트라이아웃 1순위로 지명
리드 "준비된 상태"…김형실 감독 "다양한 포지션 거쳐 전천후 활용 가능"

광주 여자프로배구단 AI페퍼스가 완전체로 시즌을 대비하게 됐다.

AI페퍼스는 "여자부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1순위로 지명한 니아 리드(25·미국)가 지난 27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28일 밝혔다.

리드는 2022-2023 시즌 페퍼스에서 아포짓 히터(Opposite Hitter·라이트)로 뛰게 된다. 페퍼스는 리드가 지난 시즌 30경기에 출전, 598득점으로 득점랭킹 6위에 오른 엘리자벳을 능가할 자원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드는 신장 189cm로, 2021~2022 시즌 브라질 리그 세시 볼 레이 바우르에서 득점 1위를 기록한 선수다. 올해 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와 판 아메리칸 컵에 각각 미국 국가대표로 참가했다. 이에 따라 타 팀 소속 외국인 선수들이 지난 7월 입국한 것과 달리 뒤늦게 합류하게 됐다.

리드의 가세로 페퍼스는 비로소 이번 시즌 정규 멤버를 갖추고 훈련하게 됐다.

리드는 페퍼스에서 경기력을 검증받고 기량을 쌓아 미국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올해 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와 판 아메리칸 컵을 앞두고 미국 국가대표로 선발됐으나 2진으로 코트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욕도 왕성하다. 리드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V리그 드래프트에 도전해 한국 구단의 외면을 받았으나 삼수 끝에 '1순위'의 영예를 누리며 V리그 입성에 성공했다.

그는 "어느 포지션이든 소화가능하다. 많은 경기에 내보내달라"고 김형실 감독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실제 고교 때 미들 블로커(Middle Blocker·센터), 아웃사이드 히터((Outside Hitter·레프트) 등 다양한 포지션을 거쳤다.

리드는 "여름 내내 운동하고 훈련해서 충분히 준비된 상태"라며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100%로 최선을 다해 시즌을 준비할 것이다. 열린 마인드로, 흔쾌히 경쟁과 발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입국 소감을 밝혔다.

김형실 감독은 "플레이를 점검한 결과 리드는 호쾌한 점프력에 공격 다양성이 돋보이고 블로킹 또한 공격적이었다. 브라질 리그 득점왕을 통해 이를 증명하였고, 미국 국가대표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한 모습을 기대한다"며 "구단 합류 시점이 늦어졌지만, 부상 등이 없어 실전 투입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훈련시간을 극대화해 기존의 선수들과의 접목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니아 리드가 다양한 포지션을 거쳤기 때문에 전천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형실(왼쪽) 감독과 니아 리드.

한편, 지난 시즌 페퍼저축은행의 창단 첫 시즌을 함께한 외국인선수 엘리자벳은 2순위로 KGC인삼공사의 유니폼을 입었다. AI페퍼스는 다음달 28일 광주에서 홈 첫 경기를 치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 27일 밤 입국한 니아 리드가 환영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AI페퍼스 제공〉

3년만에 열린 유당기 전국생활체육 검도대회 성공리 마무리

70여개 단체 1000여명 기량 겨뤄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광주에서 열린 유당기 전국생활체육검도대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사진〉

28일 광주시검도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유당학원, 재단법인 유당문화재단이 주최한 제27회 유당기 전국생활체육검도대회가 최근 광주서석중·고등학교체육관에서 열렸다. 전국 70여 개 단체, 1000여명(선수, 임원, 심판 등) 선수단이 참가하는 등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호주에서도 선수들이 참가, 검도 세계화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회는 검도발전에 기여한 최상옥 선생(남화토건(주) 창업자) 창설했다. 검도인들의 우의와 화합을 다지고 지역과 사회 통합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대회 부분별 우승자(도장).

▲개인전=일반1부(정준호·박연정 검도관), 일반2부 청·장년(김동균·선인검도관), 여자부 청장년(사토유키·센텀조은검도관), 여자부 중년부(하선숙·모라검도관), 일반 2부 중년부(정종철·인덕검도관). ▲단체전=일반1부(국대검도관), 일반2부 청·장년(일지검도관), 일반2부 중년(사천검도관), 여자부(박연정검도관A), 초등부(진성검도관 A), 도장 통합부(TOP 검도관).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육상연맹, 전국체전 광주선수단 격려

광주시육상연맹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광주시 육상선수단 격려에 나섰다.

박찬모 광주시육상연맹 회장은 지난 27일 광주체고를 방문, 전국체전 출전을 위해 막바지 훈련 중인 고등부 육상선수들을 격려했다. 〈사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7일부터 울산 일원에서 열리며 육상 경기는 10월 9일 남녀 100m를 시작으로 나흘간 진행된다.

박찬모 광주시육상연맹 회장은 "제103회 전국체전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광주 선수단이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내 최대규모 모터스포츠 축제 '2022 전남GT' 다음달 1일 개막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서 5개 종목 200여대 치열한 속도 경쟁

국내 최대 규모 모터스포츠 축제인 '2022 전남GT(Grand Touring) 대회'가 10월 1일부터 이틀간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2022 전남GT'는 2014년부터 모터스포츠와 경주장문화 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한 종합스피드 축제로 아마추어부터 국내 정상급 선수까지 5개 종목 200여 대가 열전을 펼친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자동차 경주를 포함해 모터사이클까지 경주장 풀코스인 F1트랙에서 치열한 스피드 경쟁을 겨룬다. 기존 상설트랙(3.04㎞)에서 F1트랙(5.6㎞)으로 코스가 확대됨에 따라 1.2㎞의 직선구간에 맞는 주행전략 및 차량 세팅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게 돼 경주팀의 새로운 도전에 관심이 주목된다.

대회 메인 종목인 '전남내구'를 포함해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로대회 '삼성화재6000', 영국 경주 전용차량인 '레디컬', 400cc 모터사이클 종목인 '스포츠바이크' 등 국내에서 펼쳐지는 모든 경주 중 가장 흥미로운 종목만 골라 모터스포츠의 즐거움을 극대화했다.

특히 이 대회를 대표한 '전남내구'는 120분 동안 가장 많은 거리를 주행한 차량이 우승하는 종목으로 올해는 늘어난 코스 길이와 길어진 경기 시간(90분에서 120분)으로 변수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산차를 개조(GT)한 차량과 경주 전용차량이 통합 주행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국내 프로 선수의 꿈의 무대인 국내 최상위 대회 '삼성화재6000'은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라운드가 진행된다. 올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며 최종 챔피언을 향한 양보 없는 우승 경쟁으로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 프로토타입은 레이싱 전용으로 제작된 영국의 고성능 경주차 '레디컬'이 독특한 외관과 제로백(0→100km/h 가속시간) 3초대의 폭발적 속도를 선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는 400cc 미만급 모터사이클 종목인 '스포츠바이크400'은 40분 내 78㎞를 주행한다.

코로나19로 무관중으로 운영되다 2년 만에 관람객과 함께하는 행사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자동차 관련 기업의 관심도 높다. '전남내구300'에 넥센타이어사의 고성능 타이어인 '엔페라SUR4G'가 공식 타이어로 선정돼 120분의 내구레이스를 통해 주행 성능과 내구성을 선보인다. 슈퍼레이스도 관람객을 대상으로 기념품 증정 및 가상 레이싱 체험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마련했다.

김차진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전남GT 대회는 국내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통합 및 화합의 장"이라며 "아시아 최고 수준의 모터스포츠 이벤트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2 전남GT는 무료 관람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카카오TV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팀 동료끼리 치고받은 말리 여자농구 선수들 "의욕 과했다"

경기가 끝난 뒤 팀 동료끼리 치고받으며 물리적 충돌을 빚은 말리 여자농구 선수가 사과의 뜻을 밝혔다.

말리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농구연맹(FIBA) 여자월드컵에서 조별리그를 5전 전패로 마쳤다. 같은 팀 선수끼리 주먹을 주고받은 사건은 26일 세르비아에 68-81로 패한 뒤에 벌어졌다.

선수들이 공동취재구역을 통과하는 사이에 살리마투 코로마와 카미테 엘리자베스 다보 사이에 시비가 붙어 결국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코로마는 27일 캐나다와 경기를 마친 뒤 인터뷰에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전 세계 농구 관계자들과 FIBA, 대회 조직위원회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정직한 후보2
2관	정직한 후보2
3관	정직한 후보2
4관	공조2: 인터내셔날
5관	인생은 아름다워
6관	인생은 아름다워
9관	인생은 아름다워, 애프터: 에버 해피,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잎학교
7관 씨네커플	극장판 헬로카봇: 수상한 마술단의 비밀, 늑대사냥,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잎학교
8관 씨네커플	공조2: 인터내셔날, 늑대사냥, 육사오(6/45), 극장판 헬로카봇: 수상한 마술단의 비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_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③
트리오 오원
일시 : 2022. 10. 17.(월) 19: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62-613-8235

광주시립합창단 제190회 정기연주회
가을저편
일시 : 2022. 10. 12.(수) 19:3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613-8245